

치 사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며, 생명의 소중함을 나누는 ‘난치병 어린이 돕기 3000배 철야정진’에 동참하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 뜻은 번뇌와 고통에서 길을 잃은 중생들에게 대자대비하신 원력으로 자비의 손길을 내밀어 밝은 길을 열어가는데 있습니다.

하지만 현시대는 급속한 발달과 물질문명을 우선시하는 풍토로 인해, 인성과 정신의 가치가 등한시 되고,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 그리고 집단 이기주의가 팽배해지면서 어느새 탐진치 삼독심(三毒心)으로 물들어 가고 있는 듯합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바로 읽어가며 지금의 편리와 안락에만 머무르겠다는 안일한 생각은 반드시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자리아타(自利利他)의 수행과 자타불이(自他不二)의 정신으로 보시(布施)와 복전(福田)이라는 수승한 가르침을 우리의 삶에서 올곧게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소중한 마음으로 함께하신 사부대중 여러분 !

부처님께서 ‘병든 사람을 돌봐주는 것은 곧 나를 돌보는 것이요, 병자를 간호하는 것 또한 나를 간호하는 것’ 이라

하셨으며, ‘병자를 돌보는 보시가 참다운 보시’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난치병 어린이들을 위한 철야정진에 임하는 여러분들은 단순한 물질적인 보시를 넘어 육체적이고 정신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난치병 어린이들과 가족들의 지친 마음을 보듬고 온정을 나누는 뜻 깊은 공덕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사회의 이기적인 마음과 생명 경시현상을 참회하고, 여기에 희생되고 있는 못 생명들이 지혜와 자비의 품안에서 재활되기를 발원하는 보살행의 현장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고통이 혼자만의 일이 아니며, 이를 돕고자 하는 이웃이 있다는 따뜻함을 전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오늘과 같이 뜻 깊은 일에 동참하신 전국의 사찰과 스님들, 그리고 불교 사회복지 종사자와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과 노고에 깊은 치하의 마음을 전합니다. 자비 보살행의 실천으로 우리 사회가 밝고 행복한 불국정토로 화현되도록 함께 정진해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불기2560년 4월 23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 합장